

‘11일 만의 실전’ KIA, 홈 6연전서 반등 노린다

11~13일 광주 삼성전...14~16일 두산과 순위 경쟁
김도영 등 타선 감각 유지 관건...폭염 변수도 촉각

KIA타이거즈가 지나간 폭염 휴식을 마치고 안방에서 순위 반등에 도전한다. KIA는 이번 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삼성라이온즈와 두산베어스를 차례로 상대하는 홈 6연전에 돌입한다. 리그 2위 삼성에 이어 4위 두산까지 순위 경쟁팀들과 연이어 맞붙는 만큼 이번 6연전 결과가 상위권 추격의 중요한 변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KBO는 폭염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예정됐던 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폭염으로 경기가 취소된 건 리그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취소된 경기들은 9월 이후 재편성된다.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고려해 오는 9월 6일까지 모든 경기도 원칙적으로 오후 7시에 시작한다.

특히 KIA에는 휴식이 더욱 길었다. 지난달 31일 창원 NC다이노스전을 마지막으로 폭염에 따른 경기 취소가 이어지면서 무려 열흘 동안 실전을 치르지 못했다.

충분한 체력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전 감각 저하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일정한 등판 간격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투수보다 매일 투수의 공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타자들에게 긴 휴식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범호 감독도 실전 감각을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이 감독은 “많이 쉬는 것은 선수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선발투수들은 원래 4~5일을 쉬고 등판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타자들은 쉬고 난 뒤 다시 공을 쳐야 하기 때문에 감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부상 방지가 중요하다. 폭염 휴식이 끝났다고 해도 무더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감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전에 야구할 때보다 기온이 더 높은 상황이고 이런 날씨가 계속 반복될 수 있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KIA가 가장 기대를 거는 선수는 김도영이다.

김도영은 폭염 휴식 직전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했다. 최근 7경기 27타수 11안타 6홈런 9타점 타율 0.407을 기록하며 타선을 이끌었다.

시즌 성적도 100경기 111안타 33홈런 86타점 83득점 타율 0.300으로 홈런 부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때 2할대에 머물렀던 시즌 타율 역시 마침내 3할까지 끌어올렸다.

문제는 열흘이라는 실전 공백이다. 뜨거웠던 타격감이 그대로 이어질지는 투쟁을 열어봐야 한다. 다만 최근 오른쪽 어깨에 불편함을 느꼈던 김도영에게 충분한 휴식 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9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KBO리그 경기에서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승리 후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KIA타이거즈

다. 이 감독은 김도영에 대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최근 경기에서 슬러iding을 하다가 오른쪽 어깨가 살짝 불편했던 부분도 쉬면서 해소됐을 것”이라며 “체력적으로는 분명 좋아졌을 것이다. 감각적인 부분은 다른 문제지만 워낙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은 선수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타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KIA는 휴식 이후 첫 상대부터 만만치 않다. 주중 3연전에서 만나는 삼성은 59승 2무 39패 승률 0.602로 리그 2위에 올라 있다. 팀 타율 0.278. 평균자책점 4.21로 모두 KIA(팀 타율 0.271·평균자책점 4.49)보다 앞선다.

다만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KIA가 7승 4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삼성은 11일

페덱을 선발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KIA는 울리를 선발로 투입한다.

삼성과의 3연전을 마치면 곧바로 두산과 주말 3연전이 기다린다. 두산은 팀 타율 0.269로 리그 7위에 머물고 있지만 평균자책점은 3.76으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낮다.

탄탄한 마운드를 앞세워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KIA는 올 시즌 두산과의 상대 전적에서 5승 7패로 열세다.

순위 경쟁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KIA는 3위 LG트윈스를 2.0게임차로 추격하고 있고 4위 두산과의 격차는 불과 0.5게임차다. 반대로 6위 한화이글스와도 4.0게임차에 불과해 한 번의 연승과 연패에 따라 순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체력을 충전한 KIA가 삼성과 두산을 상대로 안방에서 승수를 쌓으며 본격적인 순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wangnam.co.kr

SOOP 수퍼스, 고의정·서지혜 영입...전력 보강

IBK와 트레이드로 고의정·신인 2R 지명권 확보

현대건설서 서지혜 합류...창단 첫 시즌 준비 박차

여자프로배구단 SOOP 수퍼스가 트레이드로 고의정과 서지혜를 영입하며 창단 첫 시즌을 위한 전력 보강에 나섰다. SOOP 수퍼스는 10일 IBK기업은행 알토스배구단과 트레이드를 통해 아웃사이드 히터 고의정과 2026~2027시즌 신인 선수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SOOP은 라베로 정승민을 IBK기업은행으로 보내는 조건으로 이번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이러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도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SOOP은 현대건설로부터 아웃사이드 히터 서지혜를 영입하는 대신 2027~2028시즌 신인선수 드래프트 2라

운드 지명권을 양도한다.

두 선수를 동시에 품으면서 SOOP은 아웃사이드 히터진의 선수층을 한층 두껍게 만들었다.

고의정은 풍부한 V-리그 경험을 갖춘 선수로 2018~2019시즌 신인선수 드래프트 2라운드 5순위로 프로에 입문한 뒤 꾸준히 코트를 밟았다. 특히 2020~2021시즌부터 세 시즌 연속 30경기 이상 출전하며 경험을 쌓았다. 2020~2021시즌에는 170득점을 올리며 공격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강한 서브와 공격력을 갖추고 있어 상대 리시브 라인을 혼드는 동시에 측면 공격에서 힘을 보탤



고의정 서지혜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생 서지혜는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영입이다. 현대건설에서 프로 무대를 경험한 젊은 아웃사이드 히터로 공격과 블로킹 등 전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SOOP은 서지혜가 경험을 쌓는다면 향후 팀의 측면을 책임질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트레이드로 SOOP의 아웃사이드 히터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베테랑 전세안과 유망주 송은채를 영입한 데 이어 고의정과 서지혜까지 새롭게 합류하면서 경험과 성장 가능성을 두루 갖춘 선수층을 구축하게 됐다.

김세진 SOOP 수퍼스 감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선수 운용의 폭을 넓히고 팀 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들이 각각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선수들은 최근 선수단에 합류했다. 외국인 오스트리아인 피츠모리스와 아시아쿼터 이즈 쉬에는 최근 입국해 본격적인 팀 훈련 준비에 들어갔다. 국내 선수 보강과 외국인 선수 합류가 잇따르면서 SOOP의 창단 첫 시즌 밀고림도 점차 완성되고 있다. 두 건의 트레이드로 측면 자원까지 강화한 SOOP은 선수단 내부 경쟁을 통해 조직력을 끌어올리며 새로운 시즌을 준비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wangnam.co.kr

장흥군청 김장우, 국제대회 세단뛰기 ‘금’

후지호쿠로쿠 월드 트라이얼서 16m94로 정상 올라

한국 남자 세단뛰기 기록 보유자 김장우(28·장흥군청)가 국제무대에서 금빛 도약을 펼치며 전남 육상의 위상을 높였다.

김장우는 지난 9일 일본 야마나시 현 후지요시다시 후지산 GX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8회 후지호쿠로쿠 월드 트라이얼 육상대회’ 남자 세단뛰기에서 16m94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곡성 출신인 김장우는 이날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폭발적인 도약을 앞세워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특히 자신이 보유한 한국기록인 17m13에 19cm 모자란 16m94를 뛰어 국제무대에서도 국내 최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 시즌 상승세도 이어갔다. 김장우는 지난 5월 제55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6m44로 우승한 데 이어 제8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16m63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6월 열린 2026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는 16m23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장우는 ‘제8회 후지호쿠로쿠 월드 트라이얼 육상대회’ 남자 세단뛰기에서 16m94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지난해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남자 세단뛰기 금메달을 차지하며 국내 최강자의 자리를 지켰다. 꾸준히 16m대 후반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데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기록에 근접한 기록까지 남기면서 시즌 후반 굵직한 대회를 앞두고 전망을 밝혔다.

김장우의 다음 목표는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이다. 오는 9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아 정상에 도전한 뒤 10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김장우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육상의 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한국기록 보유자로서 아시안게임과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선보여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wangnam.co.kr

‘186전 187기’ 장은수, KLPGA 첫 우승

데뷔 10년 만...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최종합계 14언더파

장은수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규투어 데뷔 10년 만에 마침내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장은수는 지난 9일 제주도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파72)에서 열린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10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잡아내며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적어낸 장은수는 공동 2위 강재연과 문정민(이상 13언더파 275타)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무엇보다 오랜 기다림 끝에 거둔 첫 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상비군과 국가대표를 거친 장은수는 2017년 KLPGA 정규투어에 데뷔해 신인왕을 차지하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이후 좀처럼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특히 2020시즌 이후에는 세 차례나 정규투어 출전권을 잃으며 드림투어를 병행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정규투어 무대를 두드린 끝에 데뷔 10년째인 올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이번 대회는 장은수가 정규투어에서 출전한 187번째 대회였다.

장은수는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던 강재연에게 1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했다. 이어 15번 홀까지 강재



연과 공동 선두를 이루며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다.

승부처는 16번 홀(파4)이었다. 장은수는 버디를 성공시키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17번 홀(파3)에서는 파 퍼트를 집어넣으며 선두를 지켰다.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는 티샷이 병커에 빠지는 아찔한 상황이 나왔으나, 파

퍼트를 마무리하면서 생애 첫 우승을 확정 지었다.

장은수는 우승 인터뷰에서 “KLPGA 정규투어에서 처음 우승해서 정말 기쁘다”며 “데뷔 후 10년 만에 거둔 첫 우승이라 더욱 뜻깊고 기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26시즌을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가 첫 우승이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목표는 2승이다”면서 “하반기 첫 대회부터 좋은 흐름을 만든 만큼 앞으로도 나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정민도 마지막 날 보기 1개를 범하는 동안 버디 8개를 쓸어 담으며 7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렀다. 최종 합계 13언더파로 공동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지만 2024년 9월 대보 하우스디 오픈 이후 통산 두 번째 우승에는 1타가 부족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wangnam.co.kr